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행복도시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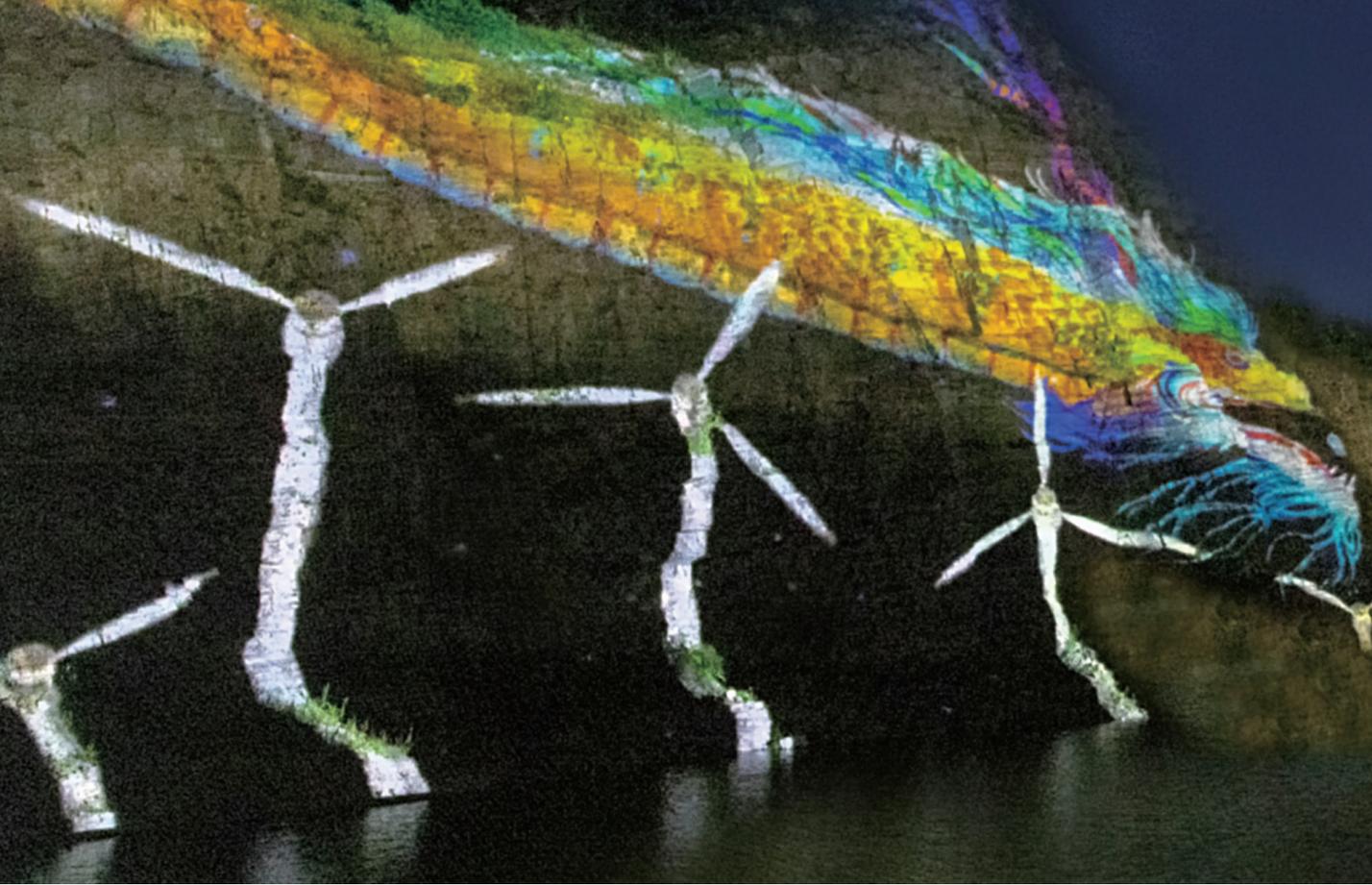
안산 톡톡



12

2023 December

Vol.520



Cover

2021 제14회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가작, 최광용) 안산문화원 초가설경

2023 Vol.520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인 안산시장 이민근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 공보관

e-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481.2042 E-mail ansannews@korea.kr

[안산시청 홈페이지](#) ▶ [안산소개](#) ▶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무료 신청

@ansancity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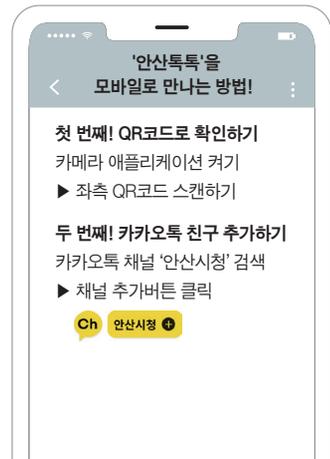
안산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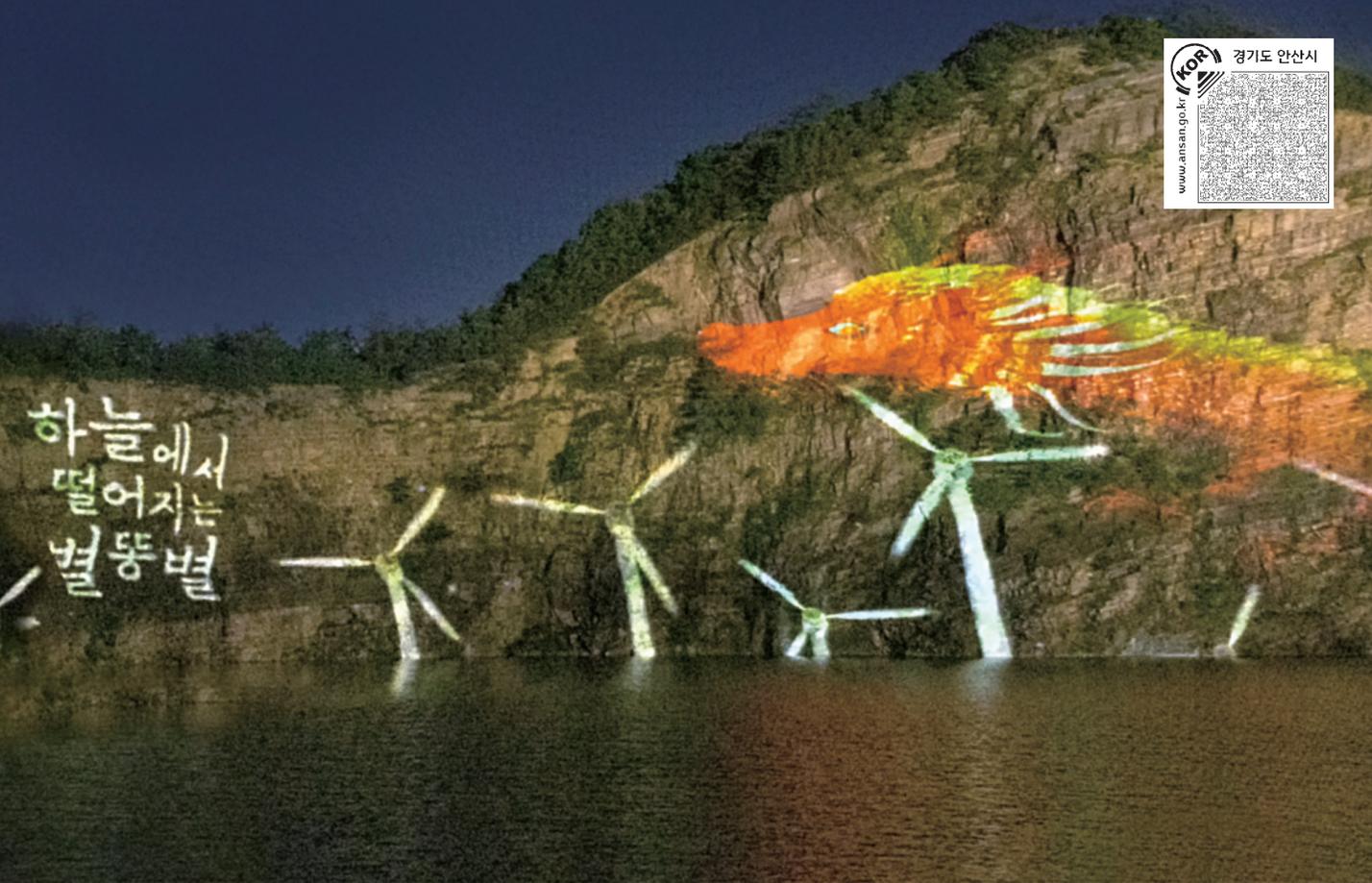
@ansancity

cityansan

ansancity

안산시유튜브





2022 제15회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입선, 김효경)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배경으로 한 미디어파사드

CONTENTS

혁신 + 안산



- 04 **톡톡 특집**
그대가 있어 안산
- 08 **숨.보.명**
안산 해님이 명소
- 10 **시민과 친해지길 바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자유 + 안산



- 12 **안산톡톡 명예기자**
하모니
- 16 **안산톡톡**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18 **큰글씨 알림정보**
- 20 **안산의 맛집**

시민 + 안산



- 22 **안산TALK·시정알림**
- 26 **우리 동네 이야기**
- 28 **톡톡 전문가 칼럼**
- 30 **시민TALK**
- 32 **문화소식**
- 34 **알림TALK**

시민들과 함께한 2023년 '그대가 있어 안산'

2023년의 365일, 8,760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했다.

누군가는 느릿하게 누군가는 쏜살같이 달려갔다고 말한다.

저마다의 속도로 저마다의 시간을 살아간 시민들의 한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2023년 누군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찰나의 순간들을 공유한다.



가
다



따뜻한 별에 터지는 꽃봉오리, 고개를 드는 새싹들. 봄이구나! 마치 함박눈처럼 벚꽃은 눈이 되어 사람들의 머리,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는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안부를 물으며 누군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날이 많아서 좋다. 짧아서 보내기 더 아쉬운 이 봄을 오래도록 붙잡아 본다.



1



1

여름



동네 물놀이터의 잠겨있던 수도꼭지가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졌다. 더위를 모르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그 순수함에 어른들도 잠시 더위를 잊어본다.

- 1 여름, 방아머리 해변의 시민들
- 2 안산썰매장 물놀이장
- 3 선셋콘서트를 즐기는 시민들



3



- 1 3.1절 기념식 퍼포먼스
- 2 흐드러진 벚꽃 아래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들
- 3 지구의 날 캠페인을 하는 아이들
- 4 안산국제거리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3



가을

거리마다 빨갛고 노란 풍경이 발길을 붙잡는다. 구태여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안산의 곳곳은 짙은 가을 풍경이 가득했다.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곳곳에선 축제와 행사로
 가을의 낮과 밤을 수놓았다. 끊이지 않은 노랫소리처럼
 끊이지 않고 웃었던 우리들의 가을날이다.



- 1 마을 동창회 '교복 입고 낭만 소풍'의 고운 어르신들
 "아유, 늙은이를 위해 이런 날을 맹그려 줘서 고마워."
- 2 유니온페스티벌에서 느껴지는 젊음의 열기
- 3 가을날 김홍도 축제를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
- 4 마을 축제에서 즐겁게 놀이하는 아이들
- 5 별망성예술제에서 가을 저녁 만끽
- 6 여르미오페스티벌에서 음악을 즐기는 시민들



겨울

11월 17일 올해 첫눈을 시작으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다. 첫눈이라는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잠시지만 평평 쏟아져 내렸다. 여기저기 서둘러 김장을 나누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집집이 겨울 채비에 나선다. 겨우내 꿈꿨던 몸과 마음은 따뜻한 집에 들어서면 금새 녹아내린다. 내가 사는 이곳, 온기 가득한 안산이다.



- 1 겨울엔 눈썰매! 안산썰매장의 겨울 '빙그르르'
- 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힘내라 수험생"
- 3 중앙역 플랫폼의 아침 풍경, 일터로 학교로 분주히 옮기는 발걸음
- 4 내 뉘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김장나눔행사
- 5 안녕을 빌어보는 잣머리성황제



기획① | 숨.보.명.

한 해의 마무리는 안산 해넘이 명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다짐하기 위해 연말 해넘이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사는 안산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해넘이를 만날 수 있다. 바다로 지는 해넘이, 도심에서 지는 해넘이, 산에서 지는 해넘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안산의 예상 해넘이 시각은 17:24이다. 안산에서 만날 수 있는 해넘이 명소 네 곳을 소개한다.

*예상 해넘이 시각은 11월 15일 확인 기준임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시화나래휴게소 달전망대

달전망대는 시화방조제 시화나래휴게소에 위치하며, 공원과 함께 조성되어 대부도로 들어가기 전 잠시 쉬면서 경치를 둘러보기 딱 좋은 곳이다. 달전망대 1층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25층 전망대에 도착하면 아찔한 유리 바닥이 75m 아래를 내비친다. 360도로 서해와 시화호 일대를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은 무료여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겨울철 추운 날씨가 걱정된다면 따뜻한 실내에서 맞이하는 해님이 명소로 이곳을 추천한다.



시화나래휴게소 달전망대



탄도항과 누에섬

● 구봉도 낙조전망대

대부도 구봉도의 낙조전망대는 이름처럼 해님이 아름다운 곳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전망대로 가는 길은 우거진 숲속을 걷는 산길과 서해의 갯벌을 보며 걷는 해변 길이 있다. 산길은 약 2시간, 해변 길은 약 30분가량 소요되며 저마다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낙조전망대에는 '석양을 가슴에 담다'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놓여있으며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와 아름다운 노을빛을 떠오르게 한다.



구봉도 낙조전망대



수암봉

● 탄도항과 누에섬

탄도항과 탄도항에서 1.2km 떨어진 누에섬은 연말이 아니어도 노을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작은 무인도인 누에섬은 하루 두 차례 4시간씩 갯벌이 드러날 때 들어갈 수 있다. 윤슬이 붉게 물드는 시간, 사람들은 바닷가 주변 옹기종기 모여 붉은 하늘과 물들어 가는 바다를 바라본다. 안산역에서 123번 버스를 타면 탄도항 종점까지 갈 수 있으며 누에섬까지 들어간다면 물때를 미리 확인해서 길이 열리는 시간을 사전에 체크하자.

● 수암봉

수암봉은 수리산 자락 북쪽에 위치하고 높이는 398m로 정상까지의 코스가 4개 있다. 이 중 1코스는 비교적 쉬운 계단 길이이며 거리도 1.4km로 짧고 약수터, 운동시설, 생태 학습터가 있어 쉬어가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수암봉 정상에 올라서면 안산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편히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벤치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정상에 올라 안산 시내를 배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노라면 한 해 동안의 수고로움과 감사, 새해를 맞이할 용기와 기운이 솟아날 것만 같다.

안산시 주요 부서를 소개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주요 업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대한민국 Korea / 1644-7111 (1)	 태국 Thailand / 1644-7111 (8)
 중국 China / 1644-7111 (2)	 필리핀 Philippines / 1644-7111 (9)
 베트남 Viet Nam / 1644-7111 (3)	 스리랑카 Sri Lanka / 1644-7111 (01)
 몽골 Mongol / 1644-7111 (4)	 캄보디아 Cambodia / 1644-7111 (02)
 인도네시아 Indonesia / 1644-7111 (5)	 네팔 Nepal / 1644-7111 (03)
 러시아 Russia / 1644-7111 (6)	

부서	담당팀	업무 목록
외국인주민 행정과	외국인주민행정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운영 및 시설 관리 외국인주민정책 및 주요시책 개발 상호문화도시 조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발굴·시상 세계문화체험관 및 상호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 외국인주민협의회 운영 외국인주민지원본부 SNS 운영
	외국인주민권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 인권시책 개발 인권증진 기반 조성 사업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위탁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외국인주민 응급지원사업 운영 동포인식개선사업(외국인주민복지센터 지원)
	다문화특구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마을특구 개발 및 관리 다문화마을특구 전선·통신 지중화사업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다문화마을특구 운영 및 성과관리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 운영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특구지역 외국인상권 조사 및 분석 특구지역 외국인조리사 고용추천서 발급
외국인주민 지원과	외국인주민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시설관리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
	지구촌문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인의 날 기념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추진 각국 대표 다문화 축제 추진 외국인주민 국가 공동체 행사 지원 외국인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 안산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추진 안산시세계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유튜브 방송 운영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및 상호문화 태권도 시범단 운영
	외국인주민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소식지 '안산하모니' 발행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사업 소개

●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주요내용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 (이수자는 체류 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 시험 면제 등 이민 정책적 혜택을 제공받음)
교육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시민교육
대 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문 의 외국인주민교육팀 481-3734

●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 운영**

주요내용 (시설 대관) 캠코더 등 촬영 기자재 2종 및 어도비 편집프로그램 대어 (교육 운영) 월별 2개 반 [평일반(주 2회, 회당 2시간) / 주말반(주 1회, 회당 3시간)] 영상 제작 및 편집 교육과정 운영
운영시간 09:00~12:00(오전) / 13:30 ~17:00(오후) 2회
 오전 / 오후 나누어 1일 1회 이용 가능, 센터 사정에 따라 이용 제한
장 소 단원구 부부로 43, 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
시 설 다목적 스튜디오, 조정실 겸 편집실, 커뮤니티실
문 의 다문화특구지원팀 481-3905

●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안내(12월)**

주요내용 세계문화체험 교육(사전예약제), 전시관 자유 관람 운영
운영시간 월~ 금 09:00~12:00(주말, 공휴일 휴관)
장 소 단원구 원본로 15(원곡동 746-6) 2층
시 설 홍보관: 세계 악기 및 인형·의상 전시, 놀이 체험, 다문화 음식 및 각종 유물(화폐 등) 전시, 포토존 및 휴게시설
 강의실: 다문화 교육 강의실
문 의 외국인주민행정팀 481-3745

●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운영기간 연중
대 상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종 목 4개 종목(태권도, 남·여 배구, 방송댄스)

종목	운영 기간	운영 일정		장소
		요일	시간	
태권도 아카데미	연중	(수·금)	20:00~22:00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3층)
태권도 시범단	연중	(일)	15:00~17:00	
배구	연중	여(일)	14:00~16:00	선부체육관
		남(일)	16:00~18:00	
방송댄스	연중	(월·수)	18:00~20:00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3층)

문 의 지구촌문화팀 481-3740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산의 대응? 출입국·이민관리청이 궁금해요!



대토론회 현장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공존하는 안산시

지난 11월 14일,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300인이 모여 대토론회를 개최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시민, 전문가, 공직자 등 300명이 참여한 대토론회는 시에서 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 프로젝트를 공론화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민청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민청이 무엇인지는 어렵듯이 알 것도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좀 더 뚜렷하고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의 필요성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한 문제에 책임 있게 답할 수 있고, 신속하고 통일된 정책을 수립해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출입국·이민관리정책 컨트롤타워가 이민청이다.





유치지지 퍼포먼스

안산의기 대한민국의기

법무부는 ‘무분별하게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만을 재량권을 가지고, 인유애나 인도주의보다 철저하게 국익 위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이민자, 외국인 범죄 문제 등의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법무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민청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외국인 인재 유치 등 다양하고 유연한 이민정책 활성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

안산으로 가면 답이 보인다

“안산으로 가면 답이 보인다” 안산시의 노력은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져 있다. 우리 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 전국 최대도시로 90년대 초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시작했으며, 2005년 국내 최초 외국인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했다. 10개에 달하는 외국인 종합행정타운 운영을 비롯해

▲40여 개의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동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외국인 정책 기반이 확고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정립해 왔다.

이민청은 한마디로 법무부에서 신설하는 정부 기관

우리 시에 이민청을 유치한다는 것이 외국인 주민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기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가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올라갈 뿐 아니라 교통, 일자리, 도시발전 등으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와 더불어 인구 유입 등과 같은 지역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제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통해 다문화 공존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한 걸음 내딛는 안산의 도전, 시민들의 응원과 염원이 함께 한다면 안산시의 미래는 새로운 도약에 한 발 가까워질 것이다.

잘 버리면 자원, 잘못 버리면 쓰레기

안산시 재활용품 SI 무인회수기 운영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

정부는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2022년 11월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해 왔다. 계도 종료일을 2주가량 앞둔 11월 7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중단하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된다.

안산시 재활용품 SI 무인회수기 운영

달라진 환경정책에 따라 당장 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컵과 일회용 종이컵이 우려되는 시민과 소상공인 매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이달부터 투명 페트병·캔 투입 시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인공지능 기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운영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는 시민

이용은 이렇게

무인회수기는 고잔동행정복지센터, 원곡동행정복지센터, 사동행정복지센터, 일동(성호로6길 23-1), 한양대학교 인근(한양대학1길 3) 총 5개소에 각 1대씩 재활용품 AI 무인회수기로 운영된다. 재활용품 AI 무인회수기는 라벨을 제거한 투명 페트병과 캔을 회수기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재활용품을 인식해 압축하는 방식으로 무인회수기에 이용 방법이 쉽게 안내되어 있다. 모바일 캐시비 앱(app) 또는 캐시비 교통카드 태그 후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1개당 10원씩 포인트로 적립되며 교통비 또는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도 얻지만 무엇보다 일상에서 환경개선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뿌듯함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가치에 동참

잘못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잘 버려져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 신발 등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탄생된다니 번거롭더라도 자주 이용하면 좋겠다. 회수된 캔도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이나 자원으로 재탄생된다고 한다. 무인회수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공동주택에 비해 불편한 주택가 단지에서 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투명페트병·캔 시 무인회수기
자원순환 실천, 함께하는 안산

이용시간 07:00 ~ 22:00

사용방법 모바일캐시비앱 설치 또는 캐시비교통카드 구입 후 이용 가능

시작 캐시비 교통카드 또는 유대폰을 홀더에 올리고 시작버튼을 눌러주세요

투입 투입구에 재활용품 1개씩 투입해주세요

종료 투입이 완료되면 [종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 1월 1인 최대 20개 투입가능

투입품목

- 캔** 음료캔, 주류캔만 투입 (통조림캔, 부탄가스, 분유통 등 불가)
- 투명페트병** 라벨 제거한 식음료 페트병만 투입 (워셔액병, 양념병 불가)

설치위치 총 5곳

- 성호로6길 23-1(일동)
- 석호로 171 사동행정복지센터
- 한양대학1길 3 한양대학교 옆
- 화정천동로 252 고잔동행정복지센터
- 부부로 55 원곡동행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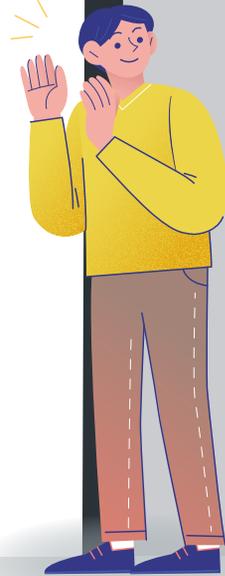
문의사항 무인회수기 콜센터 ☎1833-4945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안산시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향후 소식지 발행에 반영하고자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30일간 '시정소식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 결과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2024년에 발행될 시정소식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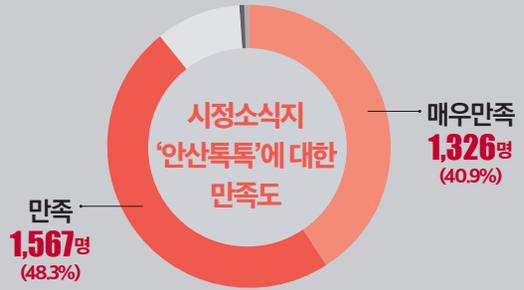
응답자 수는 지난해 966명에서 **3,241명**으로 3배가량 큰 폭 상승하여 시정소식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 응답자 **연령별**로는 30~40대가 71%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57%가 여성, 43%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구독자) 연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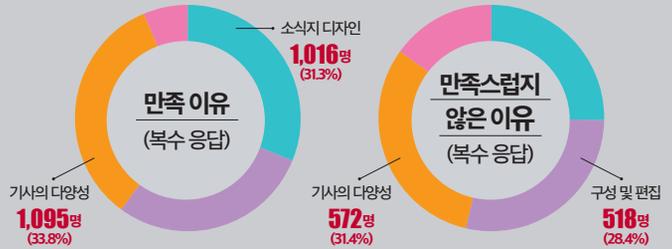


시정소식지 만족도

시정소식지 만족도에 관해 묻는 문항에서는 **만족**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매우 만족**이 **40.9%**로 높았다. **만족한 이유** 중에서는 **기사의 다양성**이 **33.8%**, **디자인**이 **31.3%**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불만족한 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사의 다양성**이 **31.4%**, **구성 및 편집**이 **28.4%**를 차지하여 만족과 불만족 이유 모두에서 기사의 다양성이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좀 더 폭넓은 대상이 흥미가 있을 콘텐츠를 바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설문 문항의 기타 의견(서술식)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추가로 파악해 '기사의 질' 향상과 함께 '다양하고 흥미 있는 콘텐츠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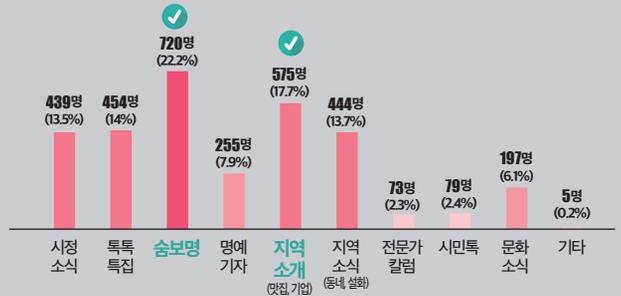


● 기사의 다양성 ● 소식지 디자인 ● 구성 및 편집 ● 기사의 질



만족하는 콘텐츠

가장 만족하는 콘텐츠로는 '숨보명'(숨겨진 안산의 보물 같은 명소) 및 '지역소개'(맛집, 기업 등)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어 향후에도 안산의 매력적인 요소를 찾아 다양한 테마로 소개하는 지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비중을 늘렸으면 하는 분야

더욱 비중 있게 다뤘으면 하는 분야로는 **문화예술**이 16.9%로 가장 높았고, **경제·일자리** 16.3%, **복지** 16.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으로 특집, 기획 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한다.

큰글씨 알림정보는 안산시의 알찬 정보를
고령자 및 저시력자 등을 배려해
조금 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겨울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추운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건강 문제를 알아보고 미리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준비해 보자.



어떤 위험이 있을까?

감염

겨울철 유행하는 감염 질병으로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감염성 위장염이 대표적이다.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매년 12월쯤 시작해서 2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를 원인으로 하는 감염성 위장염도 어르신들이 감염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음식 섭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

추위로 인해 몸이 경직되며 혈액 순환이 어렵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소의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몸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되면서 근육이 굳고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탈수와 피부 건조

공기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에게 탈수증과 피부 건조의 위험이 커진다. 또 겨울 난방기구의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겨울철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신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좁아지며 혈압상승이 일어나 뇌졸중, 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쉽다.

한랭질환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침족병이 대표적이다. 주요 증상으로 오한, 피로, 피부 감각저하, 가렵거나 저린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 공동 건강 수칙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C)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안산의 맛집

● 연말 모임은 여기! 안산시 음식 거리 ●

가슴이 탁 트이는 자연과 특색있는 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는 곳, 오직 안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안산시 음식 거리 7곳을 소개한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안산시 음식 거리로 나가보자!

전통음식거리 땡이골



어머니의 손맛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리로 유기농쌈밥, 두부, 송어, 시골밥상 등 우리 전통음식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경기도 3無(재사용·원산지허위표시·MSG금지) 3親(친환경·친인간·친건강) 음식특화거리, 대한민국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된 유명한 맛거리이다.

● 상록구 사동 1347-1353번지 일대

7080 로데오 맞길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길. 4호선 한대앞역에서 내려서 도로를 건너면 네온사인 찬란한 로데오 맞길이 시작된다. 청춘남녀, 가족, 직장인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으로 힛집, 고깃집, 퓨전음식 등이 화려하게 손님들을 맞이한다.

● 상록구 이동 716 일대

송호 맞길



귀한 분과의 만남, 송호 맞길이 정답이다. 송호마을은 조선시대 어업의 전진기지였던 곳으로 이곳에 맞길이 조성된 것은 당연하다. 한식, 중식, 양식이 모두 있고 산채 정식부터 삼대를 잇는 두부요리까지 손님들을 서성이게 하는 거리다.

● 상록구 송호2길 18 일대

다문화 음식 거리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거리!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다문화 음식 거리를 추천한다.

-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일대

대부도 방아머리



바다와 갯벌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감칠맛 나는 음식인 바지락갈국수, 활어회, 조개구이가 인기인 대부도 음식특화거리. 향토음식인 바지락고추장찌개와 간장게장, 메밀국수 등 다양한 메뉴도 있어 관광객과 식도락가들을 즐겁게 한다.

-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해변 일대

25시 사리골



참치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참치거리. 이곳은 싱싱하고 맛있는 최상의 참치를 종류별, 부위별 입맛에 따라 맛볼 수 있다. 참치 전문 셰프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으니 참치 마니아들에게 최상의 장소다.

- 단원구 광덕2로 193-7 일대

명품 화정둘레길



고즈넉한 풍경,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거리로 썩개마을에는 누룽지 백숙, 간장게장, 아귀찜, 콩요리, 추어탕 등 맛집이 준비하다. 길 반대편 꽃우물 마을은 한방오리, 장어 등 찾아가서 먹고 싶은 맛집들이 기다리고 있다.

- 단원구 썩개길, 꽃우물길 일대

ANSAN  TALK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안산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청년정책관 369-1655

내년부터 연매출액 기준 초과 가맹점 다운 화폐 사용 제한

안산시는 안산화폐 '다운' 가맹점 등록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사용처 제한 조치 절차를 진행한다. 제한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중 전년도 연 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과 슈퍼, 도소매, 병원, 약국 중 전년도 연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 2만 2,080개소 중 236개소(1%)가 대상이다. 시는 제한 대상 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 의견 청취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다운 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오는 12월 중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 481-3917

연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판매 지도단속

안산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제조사,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하수처리과 481-2459

AI 기술 활용 영상 관제로 범죄 등 위급상황 긴급 대처

안산시는 올해 연말까지 방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각종 범죄·재난 등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도시 구현에 나선다. AI를 활용해 녹화된 CCTV에서 필요한 영상을 찾아내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유의미한 영상만 실시간으로 표출돼 각종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에 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으로 CCTV를 통한 범죄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정보센터 481-2822

신안산선 공사로 시화호수로 일부 차단… 우회도로 개통

안산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 투자사업’ 제6공구 원시~송산구간 공사로 인해 2025년까지 단원구 원시동 849번지 일원 시화호수로 약 1km 구간을 차단한다.新安산선 본선 개착 터널 설치 공사로 인해 시화호수로의 개량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산스마트허브 출퇴근 및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화호수로에서 첨단도로로 연결되는 왕복 6차선 임시우회도로를 개통했다.

철도교통과 481-2971

안산 시화호에 흑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0종 도래

안산시는 지난 11월 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시화호 대송단지 내 습지에서 시화호 조류 동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총 78종 2만 6,813개체의 조류를 확인했다. 특히, 멸종위기종 조류 10종 2,320개체가 발견됐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흑고니, 고니, 저어새 등 3종 570개체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새매, 물수리, 참매, 잣빛개구리매 등 7종 1,750개체가 발견됐다. 이는 시화호와 대송습지가 겨울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안정적인 먹이 공급지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종과 개체가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태조사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정책과 481-2614

2023년 안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업체 프로젝트

안산 살고 싶을 지도 Map

Series2_ 안전할 지도

시민안전 정보 서비스



안산시청 홈페이지



안산시 주요서비스



생활정보 지도



테마맵



시민안전 정보 (16개 항목)

테마맵에서 시민안전 정보를 찾아주세요!



안상벨, 민방위대피소, CCTV(생활지도), 소화전위치, 심폐소생기, 재난예경보시설,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지진옥외대피소, 산사태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재설함, 여성안심무인택배함, 병의원, 약국, 골목길 보이는 소하기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늦은 밤 불안한 귀갓길, 주저 말고 스마트폰을 흔들어주세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경기도 안전귀가" 검색 후 설치



APP 열기

APP 실행



상록수도서관 개관

정식운영: 2023. 11. 30.(목)

- 주소 상록구 샘골로 167
- 운영시간 9:00~22:00(평일) / 9:00~18:00(주말)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
- 문의 481-3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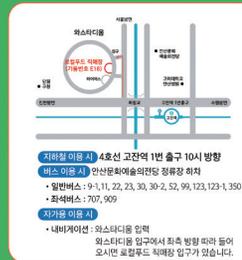


새 단장 오픈 OPEN

와~스타디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누가 길렀는지 언제 생겼는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산시 로컬푸드"

- ✓ 건강하고 신선한 농특산물과 축산물, 수산물
- ✓ 다양한 생활용품과 품질좋은 공산품
- ✓ 직접 만드는 손두부까지 편리하고 쾌적한 원스톱 쇼핑!!
- ✓ 전용주차장 완비



문의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031-401-2500

바고찌

• 바지락 고추장 찌개 •



안산 '바고찌' 취급음식점에서 바고찌 본연의 맛을 느껴보세요!



안산 향토음식점

♣ 수상한 해물보따리 (고잔동)

📍 단원구 광덕2로 163-5
☎ 031-482-3355

♣ 해가 (신길동)

📍 단원구 신길로 13-9
☎ 031-494-0413

♣ 자향담 (대부북동)

📍 단원구 당뒤길 11
☎ 032-880-0505

♣ 최고집짬칼국수 (건건동)

📍 상록구 건건1길 19
☎ 031-438-8979



안산의 설화

선부동에서 내려오는 설화



안산지역에는 지명과 관련된 다양한 지명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 선부동에서 내려오는 설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 옛날 선부동 마을 어귀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리며 배들이 왕래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진 후 마을 뒤 골짜기에 화려한 무지개가 생겨났다. 무지개가 생긴 자리에 맑은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골짜기 주변으로 은은한 음악 소리와 향기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그러기를 며칠, 마을에 살고 있던 착한 총각이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 골짜기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총각은 호기심에 음악 소리를 쫓아갔고, 골짜기 우물물에서 선녀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뵈을 잃고 바라보았고 그때 한 선녀가 다가왔다. 총각은 자신이 마을에 사는 어부이며 놀라운 광경에 발이 떨어지지 않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선녀는 자신들을 위해 뱃사공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며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앞바다에 나가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총각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앞바다로 나갔고 바다에는 화려한 배 한 척이 있었다. 배에 오르자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왔고, 북쪽으로 가서 큰 꽃이 피어 있는 우물의 물을 떠 와 달라고 부탁했다. 총각은 배를 저어 북쪽으로 갔고, 가운데 큰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우물을 발견했다. 우물물을 떠서 선녀들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우물물을 선녀들에게 전달해 주며 선녀들을 도왔다. 며칠 후 선녀들과 총각은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선녀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으로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선부동의 지명 설화다. 선녀들이 마시는 물로 사용했다는 우물은 선부동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화정리다. 오늘날의 꽃우물마을(화정동)에 있었다고 하며 선부동은 선녀가 내려왔던 마을이라고 해서 선녀마을로 불리다가 선부동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안산문화원 학예실장 전미영

설화 발췌 ●

『내 고장 안산』(안산문화원, 1990)

『안산시사』(안산시사편찬위원회, 1999)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한국 생활



최소정/베트남(상록구 사동)

2011년 초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던 날 어머니는 저에게 50달러와 금반지, 금목걸이를 주시면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돈과 금으로 먹을 것과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이제 모든 것을 너 혼자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불빛들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한국에 적응하려면 한국문화도 잘 알고 무엇보다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행복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한국에 온 후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고, 남편은 한 달 정도를 알아보고 Happy Start 프로그램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베트남어 통역하시는 분을 처음 보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문화, 한국요리까지 배우며 한국에서 살맛이 났습니다. 임신 중에도 공부하며 ITQ 한국 자격증도 취득했고, 출산 후에는 한국어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생활과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묻고 살펴주셨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될 무렵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고,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한국어 보조강사를 시작으로 베트남어 강사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며 대학 진학까지 도전하였습니다. 지금은 인근 중학교에서 이주민 아동과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글 지도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잘 적응했기에 감사함을 베풀고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1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한국 생활이 행복합니다.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며 걱정 한가득했던 엄마는 이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대학생으로, 베트남어 선생님이로 지내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큰 자랑이 되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의 행복한 한국 생활은 주변의 선생님들과 동료들, 선배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리사랑을 하듯 저처럼 한국 사회에 발 딛고 살아가려는 외국인들에게 제가 도움을 줄 차례입니다. 저의 노력과 경험이 그들과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쁜 하루를 맞습니다.

겨울철 건조하고 거친 내 피부, 그 관리법은?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유화정 교수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촉촉하던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 장벽 기능을 저하하며 각질층의 수분을 빼앗고, 낮은 기온은 피부의 지방샘과 땀샘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다. 피부 건조 증상은 잦은 목욕과 과도한 세제 사용 등의 원인으로 팔과 다리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바람과 실내 난방기의 영향으로 발생하기 쉽다.

▲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 심하게 긁으면 병 키울 수도 있어

건조한 상태의 피부는 외부의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면서 각질의 탈락이 증가하고, 건조한 부위에 가려움을 느껴 긁는 질환이 건조피부염이다. 주로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나 팔 부위에서 먼저 나타난다. 심하면 전신으로 퍼져 온몸을 심하게 긁게 되고, 이로 인한 세균감염으로 모낭염, 농양, 봉소염 등의 2차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없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남발하면 홍조, 혈관 확장, 피부 위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식습관, 생활 습관의 변화로 겨울철 피부관리

건조피부염은 피부장벽 기능이 약해져서 각질층이 수분을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병이므로 장벽기능 회복 성분이 첨가된 기능성 보습제로 피부 지질 보호막을 강화시키고 충분한 수분과 식물성 기름 섭취로 예방할 수 있다. 과일이나 채소 등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다. 심하게 때를 밀거나 뜨거운 목욕은 피부를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1회 이하, 15분 이내의 간단한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샤워나 세안 직후에 기능성 보습제를 발라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가습기 사용이나 빨래를 널어 40~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vs 양도’ -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등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세무 상식-



영원 세무회계 사무소
권영원 세무사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종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낮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자식에게 부동산의 이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자산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 이전 시에 세금이 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증여와 양도

그렇다면 부동산을 이전함에 있어 증여와 양도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먼저 증여의 경우 부모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증여 시에 자산을 받는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양도의 경우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증여보다 양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증여와 양도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취득세 역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부담부증여

증여 물건인 부동산에 채무나 전세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채무나 전세금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이전 시 부채에 대한 승계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산 전체를 증여하는 것에 비해 세 부담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역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취득세와 이월과세

올해부터 부동산 무상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로 변경되었다. 시가표준액에 비해 시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니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의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페널티가 10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증여추정 등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추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가 아닌 양도가 가족 간에 일어났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아서 매매가 있었음을 이체확인증 등 증빙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한 시가보다 싸게 산 이익만큼은 자식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시가의 5%와 3억 원 둘 중 적은 금액만큼만 정상범위로 규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부당행위로 보아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게 되어있다.



최세라(여)

출생 연월 • 2023년 10월

첫째 예라에 이어 3년 만에 찾아온 우리 둘째 세라♥ 엄마가 입덧에, 여름 만삭에, 일 다닌다고 태교도 못 하고 투덜대기만 했는데... 태어나고 보니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참 후회가 됐어. 나올 때 엄마 힘들게 안하고 엄마아빠가 뽕! 하고 나와주라~ 하는 날 23년 10월 4일에 찾아온 우리 천사 세라. 언니와 함께 환상 케미 자랑하며 라라 자매 활약해보자^^

○박아셀(단원구 신길동)



윤석민(남)

출생 연월 • 2022년 3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꼽으라면 아기만한 보물이 더 있을까요? 우리 집의 경우에는 인공수정으로 얻은 아이라서 그 어느 경우보다 소중하고 애지중지합니다. 사진 보시고 느끼는 거 없으세요? 땡땡이 인형과 아기가 친형제처럼 꼭 빼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 집은 아기가 혼자가 아니라 5남매 가족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더 자라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야겠어요. 아기는 사랑입니다.

○윤석천(상록구 본오동)



이서준(남)

출생 연월 • 2021년 2월

1년 동안의 시험관시술 끝에 어렵게 엄마 아빠 품에 와준 우리 서준이~ 엄마가 빨리 보고 싶어서인지 예정일보다 3주나 일찍, 그것도 아빠의 생일날 선물처럼 '짜잔' 하고 네가 태어났었지. 부서질까 깨질까 조마조마했던 신생아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지금은 번개 파워를 외치는 씩씩한 아들이 되었구나! 너의 반짝이는 보석 같은 눈을 바라보면 엄마의 피로가 짝 사라진단다.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밝게 자리주길~ 우리 아들 사랑해♡

○김선아(단원구 고잔동)





안산 내 사랑, 수암산 등산의 기쁨

이종섭(상록구 사동)

우리 안산시민들이라면 수암동 뒷자락에서 안산 시내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수암산 등산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걸로 안다. 초보자도 쉽고 편하게 만나질 시간 좀 내서 걷기에 너무나 좋은 코스다. 수암동 참참참식당 앞에서 보면 두 갈래 길이 보이는데 왼쪽 오르막길이 등산객들의 최애 코스다. 이쪽으로는 초보자들도 대충 왕복 2시간이면 족하다. 수암산 쉽터에서 정상 코스로 오르는 동안 시작부터 살짝 가파르고 갈수록 경사가 더해지면서 약간의 스릴과 긴장감이 느낄 수 있다. 오르면 오를수록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쭉쭉 늘어나는 느낌은 등산만이 주는 매력이자 쾌감이다.

오르막 양쪽에 늘어선 바위를 비집고 몸을 밀어 넣거나, 잘 만들어진 테크길 나무 기둥을 지렛대 삼아 오르기도 한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다른 등산객들의 숨소리가 거칠다. 오솔길의 작은 나무와 잔가지들이 등산객의 노고를 위로해 준다. “아빠, 저 소나무는 팔을 펴서 씹씹하게 체조하는 것 같아.”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등산을 따라나선 한 아이의 표현에 눈이 크게 떠졌다. 아이는 커다란 소나무를 보며 그렇게 말한 것 같았다. 참 대견하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오르면 수암봉에 다다르게 된다. 정상에 올라 마음을 가다듬고 산아래를 굽어보노라면 낮게 잠들었던 다른 산봉우리들도 겹겹의 능선을 타고 짙은 농담의 수목화를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 이게 바로 산행의 맛이로구나’ 하는 짧은 감탄도 나온다. 잠시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해 간 따스한 커피 한잔 맛있게 꺼내서 마시고 하산을 시작한다.

나뭇잎들이 자기들만의 채색에 열중한 걸 보면서 나는 마음속에 산수화를 그려본다. 이제 앞으로 수암봉 계곡마다 피어오를 핏빛 붉은색, 옥색, 그리고 샛노란 자태와 지치도록 아름다운 햇살이 어우러져 수암산은 내게 그저 자리에 누워 쉬라고 이른다. 안산시민들 모두 수암산자락이 주는 계절의 향기를 만끽하기를 기원해 본다.



시민TALK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락처, 주소, 글과 관련된 사진을 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문의: 481-2042

나비잠

주제 미취학(7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150자 내외, 아이사진

독자투고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분량 A4용지 1/2, 관련사진

2023년 12월 문화소식

안산문화재단

공연

www.ansanart.com | 080-481-4000



연극 <나의 하루>

일시 2023. 12. 9.(토) 15:00 19:00
10.(일) 14:00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내용 삶의 의지를 상실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 다가온 크리스마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준 그녀에게 귀한 선물을 하고 싶다.

관람료 30,000원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떠나는 신나는 세계여행(독일)

일시 2023. 12. 13.(수)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8세 이상 관람가)
내용 음악의 도시 라이프치히 슈만과 멘델스존 바이올린 김덕우, 첼로 박건우, 피아노 송영민이 함께 정통의 강자 독일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관람료 전석 25,000원



유니소노 색소폰 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일시 2023. 12. 17.(일) 15: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내용 클래식 재즈 영화음악 대중음악 색소폰 앙상블

관람료 무료



안녕?!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시 2023. 12. 21.(목)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내용 음악을 통해 아동들의 예술적 잠재력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한해 오케스트라 교육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성과물 발표의 시간

관람료 무료



앤섬코랄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일시 2023. 12. 28.(목)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F.J.Haydn Te deum, Charpentier Te Deum
W.A.Mozart Missa in C Major
KV337 'Missa solemnis'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2023 이은미 전국 투어 콘서트 <NOCTURN>

일시 2023. 12. 30.(토) 18: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가장 이상적이고, 더욱더 완벽한 2023 이은미 전국 투어 콘서트 <NOCTURN> 이제 곧 시작됩니다.

관람료 VIP석 121,000원 / R석 110,000원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B성년페스티벌<귀신을 불러줘!>

일시 2023. 11. 30.(목) ~ 12. 2.(토)
 목, 금 10:30, 토 14: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12세 이상 관람가)
내용 제11회 벽산희곡상, 제59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한 배해률 작가와 서경원 연출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연극 <귀신을 불러줘!>는 안산의 청소년들과 만나리서치를 통해 만들어진 신작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프린세스 공주 뮤지컬쇼

일시 2023. 12. 9.(토) 11:00 14:00 16:00
 10.(일) 11:00 14: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내용 왕관을 두고 벌어지는 다섯 공주들의 좌충우돌 색다른 이야기
관람료 전석 40,000원



다름다음

일시 2023. 12. 15.(금) 19: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내용 하트아트합창단 창단 연주회
관람료 무료



2023 최현우 Answer

일시 2023. 12. 16.(토) 15:00 19:00
 17.(일) 13:00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27년간의 마술 노하우를 집대성한 완결판 최현우의 마술쇼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66,000원



호두까기 인형

일시 2023. 12. 23.(토)~12. 24.(일) 14: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5세 이상 관람가)
내용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겨울 대표 명작 발레. 화려한 의상과 무대,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감동을 자아낸다.
관람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55,000원 / B석 44,000원



엘사의 생일 파티

일시 2023. 12. 23.(토) 11:00 14:00 16:00
 24.(일) 11:00 14: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내용 오늘은 기쁜 날 엘사언니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서 축하해주고 파티를 열어주세요.
관람료 1층 44,000원 / 2층 33,000원



2023 변진섭 전국투어 콘서트: 변천사

일시 2023. 12. 31.(일)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발라드의 황제 변진섭, 그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 변진섭의 변천사
관람료 VIP석 121,000원 / R석 110,000원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시민의 서재

내 인생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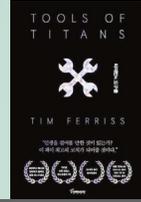
시민 추천도서



01
완전한 행복
저자 정유정
출판 은행나무



02
작별인사
저자 김영하
출판 북복서가



03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티모시 페리스
출판 토네이도

어린이 추천도서 주제: 두근두근 추리 & 탐정



01
스무고개 탐정과 미술사
저자 허교범
출판 비룡소



02
땡기머리 탐정 김영서
저자 정은숙
출판 쓰인돌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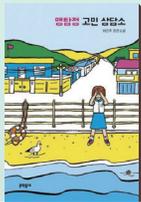


03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저자 드를
출판 미래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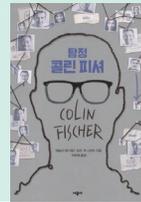
청소년 추천도서 주제: 두근두근 추리 & 탐정



01
피그말리온 아이들
저자 구병모
출판 창비



02
맹탐정 고민 상담소
저자 이선주
출판 문학동네



03
탐정 콜린 피셔
저자 애슐리 에드워드 밀러
출판 시공사

※ 자신의 서가를 소개하고 싶다면 **안산시 중앙도서관**으로 전화(481-3860) 문의해 주세요!

일자리 정보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내 일(JOB)'을 찾아드립니다.

12월 매주 목요일 대면면접 또는 화상면접 운영

구분	행사명	행사규모	장소	문의
12월 7일 (1주)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1차	구인 업체 2~3개 / 구직자 20여 명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일자리센터	481-2918
12월 21일 (3주)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2차	구인 업체 2~3개 / 구직자 20여 명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일자리센터	481-2918
수시	상설면접	구입업체 요청 시 수시 진행		481-2880

※ 행사 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 산 시 방송특독



2023. 11. 14. OBS 뉴스
다문화 도시 안산시, 이민청 유치 본격화



2023. 11. 17. KBS 생생정보
대부도에서 캠핑 즐기기(갯벌 체험, 낙조 전망대, 바다항기 테마파크 등)



2023. 11. 19. SBS 덩치 서바이벌떡찌빠
방아머리 해변



2023. 11. 10.
안산에서 만나는 가을 낭만
안산호수공원
도심에서 만끽하는 가을



2023. 11. 17.
[안산세계]
ISFP & ENFJ 우리의 궁합은?
특독 튀는 MZ 라이프 젊음의 거리 1탄



Goodbye 2023 Hello 2024



새해소망 말해봐용

2024년 나의
새해 소망은?

독자 참여
이벤트



참여 QR코드

- 참여 기간** 2023. 11. 30.(목)~2023. 12. 11.(월)
- 참여 대상** 새해소망을 나누고 싶은 안산시민
- 참여 방법** 안산시 SNS, e-안산톡톡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여 혜택** 참여한 분 중 100분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선정된 사연은 안산톡톡 소식지, SNS 등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안산시 공보관 481-2042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산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안산시 + 경찰 + 소방 + 민간

- 안전인프라 확충, 실시간 CCTV 추적 지원
- 로보랩 순찰대, 자율방범대 등 순찰 활동 강화
- 재난심리회복 지원

운영 목표

지역사회 협업 범죄대응 철저 피해자 보호·지원

안산시와 경기남부경찰청 각 기능별 부서를 매칭하고, 행정력과 지역사회 인프라를 집중·강화해 지역 불안감 해소 및 범죄 예방

향후계획

1단계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시범 운영

2단계 협력치안 플랫폼 표준화 모델 정립 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